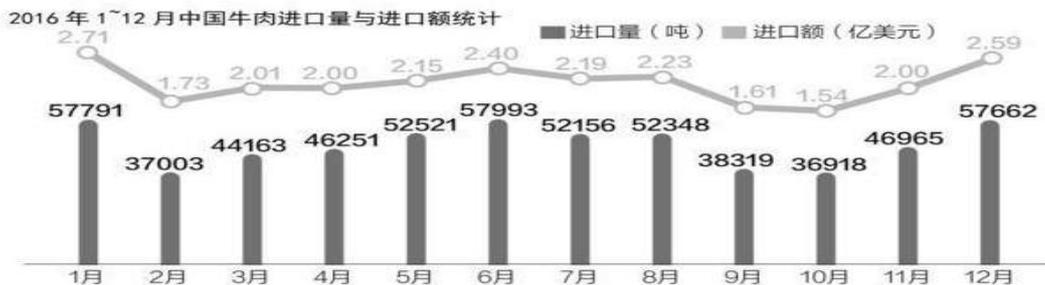


미국산 소고기 14년 만에 중국 재수출길 열리다

조사 : aT 베이징지사

- 6.20일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질검총국 미국산수입쇠고기 검염검역요구에 대한 공고》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 이로서 2003년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이후 14년 만에 중국 소비자 식탁에 미국산 소고기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소고기수요 증가율이 가장 빠른 시장. 중국의 연간 1인당 소고기 구매 상승율은 20%에 육박하며, 소비액은 유럽을 초과하여 미국 다음인 2위를 차지.
- 2016년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800만톤, 시장규모는 3,600억 위안으로, 소고기수입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6년 수입량은 58만톤을 초과하였으며 수입액은 25.2억불에 도달.



- 중국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협력연구센터 장젠핑 주임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당분간 중국의 소고기 목축업이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분석.
- 시사점 :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쿼터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중국 목축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중국 소고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 목축업계의 경쟁을 자극하여 향후 중국 목축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그동안 중국의 주요 소고기 수입국이었던 아르헨티나, 호주 등은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로 일정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sp/info/201706/21/t20170621_23749539.shtml

중국망: http://news.china.com/international/1000/20170621/30789423_all.html#page_1

제1재정망: <http://finance.qq.com/a/20170620/045363.htm>